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 학습 목표** 1.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2.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소단원 열기

-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방송실에 이름이 다른 세 학생이 함께 온 까닭은 무엇인가?

(2) 발음과 관련하여 위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말해 보자.

다음은 발음과 표기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한 글이다.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익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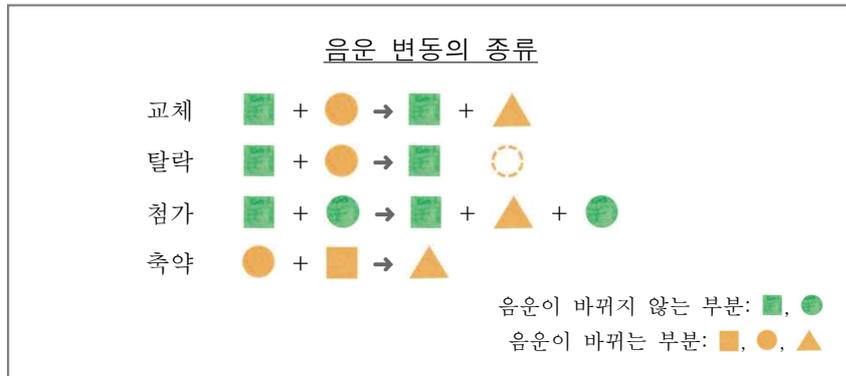
올바른 발음과 표기

-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국어의 음운 변동은 일반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고,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것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 변동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음운 변동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가운데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표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음운의 교체

● 비음화, 유음화

탐구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발음할 때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가

식물[식물]: ㄱ + ㅁ → ㅇ + ㅁ
 달는[]: □ + ㄴ → □ + ㄴ
 잠목[]: □ + ㅁ → □ + ㅁ
 심리[]: ㅁ + □ → ㅁ + □
 능력[]: ㅇ + □ → ㅇ + □

나

실내[실내]: ㄴ + ㄹ → ㄴ + ㄹ
 권리[]: □ + ㄹ → □ + ㄹ

도움말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된다.

예 독립[독립→동닙]
 협력[협력→협녁]

가에서는 받침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ㄴ, ㅁ’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인 ‘ㄴ, ㅁ,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나에서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자료실

자음 체계표 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소리 나는 위치)와 조음 방법(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자음 체계표를 알면 음운 변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음화,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인데,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구나.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입술소리 (양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구나.



● 구개음화

탐구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발음할 때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단어	발음의 변화	달라진 음운
굳이	[구디] → [구지]	ㄷ → □
미닫이	[] → []	□ → □
같이	[] → []	□ → □
붙여	[] → []	□ → □

- **접미사** 어근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말. 예) 지우개, 잡히다
-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

‘굳이’에서 ‘굳’의 받침 ‘ㄷ’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만나 구개음인 [지]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처럼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각각 구개음인 [지,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 된소리되기

탐구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어떤 환경에서 음운이 바뀌어 발음되는지 살펴보자.

가) 입구 [입꾸]	떡도록 [떡뜨록]
국밥 []	책상 [] 달지 []
나) 껌안고 [껌안꼬]	담다 [] 넘지 []
다) 갈등 [갈뜨]	실수 [] 열정 []

도움말

용언이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예

보	다
보	니
보	고
↓	↓
어간	어미

발음이 된소리로 나타더라도 표기할 때에는 원래 형태대로 적어야 해.



가~다의 예처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우리말은 다양한 환경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가)는 앞 음절의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예이고, 나)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예이다. 다)는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예이다.

음운의 탈락

● 모음 탈락

탐구

다음에서 음운이 결합할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적고, 이 과정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 보자.

크- + -어서 → [커서] 치르- + -어 → []
 가- + -아서 → [가서] 서- + -어라 → []

도움말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 탈락도 있다.

- 예) 날- + -는
 → [나는]
 놓- + -아
 → [노아]

어떤 모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 한다. ‘크- + -어서’를 [커서]로 발음하는 것처럼,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ㅡ’가 탈락된다. 또한 ‘가- + -아서’를 [가서]로 발음하는 것처럼, 모음 ‘ㅏ/ㅓ’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ㅏ/ㅓ’가 탈락된다. 이러한 모음 탈락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된다.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니까 ‘크- + -어서’는 ‘커서’로 써야겠군.



● 두음 법칙

탐구

다음 한자어에서 ‘良(량)’과 ‘女(녀)’가 위치에 따라 어떻게 발음되는지 살펴보자.

良(량)	不良 [불량/불양]	良心 [량심/양심]
女(녀)	子女 [자녀/자여]	女性 [녀성/여성]

도움말

두음 법칙에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즉, 한자음 ‘라, 래, 로, 료,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바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예) 미래(未來)
 -내일(來日)

두음은 단어의 첫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한자음 ‘라, 래, 로, 료, 루, 리’와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ㄹ’이나 ‘ㄴ’이 탈락되어 각각 [야, 여, 예, 요, 유, 이]와 [여, 요, 유, 이]로 발음되며,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이러한 두음 법칙은 ‘양심’, ‘여성’처럼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에만 적용되며, ‘불량’, ‘자녀’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음대로 발음된다.

